

ISSUE BRIEFING

2020. 12. 16
Vol. 236

2020

ISSUE BRIEFING

연구진

나정호_부연구위원 산업경제연구부

군산항에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특구를 조성하여
비대면 경제시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자!

CONTENTS

1. 코로나19, 비대면 전환시대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고민..... 02
2. 군산항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 유치 기대효과 03
3. 군산항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 운영업체 유치·운영전략 07

1. 코로나19, 비대면 전환시대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고민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지속에 따른 비대면 경제체계 전환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동제한조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대면 소비 방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소매유통 방식이 변화함
-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홈노미(home+economy)’가 활발해졌으며,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지원용품, 피부관리, 홈트레이닝, 요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품목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공급됨(김현수, 2020)
- 코로나19 확산지속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향후 전자상거래 성장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국제 전자상거래 급증과 해상운송의 역할

- 전자상거래 방식의 비대면 경제체제로 전환은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제 전자상거래 물동량 증가에 기여(한지은, 2020)
- 코로나19로 대부분 산업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물류산업은 유래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음(유통정보사, 2020)
 - 2020. 10. 23. 인천국제공항 복합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민간특송업체 통관시설 운영 등 전자상거래 물류산업 분야의 신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짐
 - 전자상거래 물류산업은 비대면 경제체계 전환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국제 전자상거래 물동량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국제 전자상거래는 미국과 중국 거래빈도가 높으며, 중국은 2017년 약 323만 건에서 2019년 약 1,150만 건으로 비약적 성장세에 있음(전북연구원, 2020)
- 국제 전자상거래 물동량 처리는 재화의 중요성, 긴급성이 높으므로 항공물류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중국의 일부 지역(산둥성 등)은 해운물류방식의 카페리물류가 경쟁력이 있음(이동현, 2020)
- 카페리물류는 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하여 여객하선과 하역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서 신속성으로 항공물류와 비교할 때, 신속성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함(전북연구원, 2020)

군산항에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특구를 조성하여 비대면 경제시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자!

◎ 한중 전자상거래 물동량 처리와 전라북도 지역경제

- 한중 전자상거래 화물의 해운물류 처리네트워크는 현재 전자상거래 화물 통관장이 조성된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군산항과 산동성 시다오항에서 처리되는 전자상거래 화물은 인천항으로 보세운송(bonded transportation)* 후 통관됨
 - * 군산항으로 수입된 전자상거래 화물은 비록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왔더라도 외국화물이며, 인천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이 가능한 국내화물이 되는데, 이때 군산항에서 인천 통관거점까지 운송하는 것을 보세운송이라 하며, 전자상거래 화물 통관장이 없는 한계로 통관장이 있는 인천, 평택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물류비용과 시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인식됨
-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에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현재 전라북도 유일의 수출입 거점인 군산항에 전자상거래 통관장이 없으며 보세운송, 통관, 택배물류 등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전자상거래 화물이 급증하고 있음(전북연구원, 2020)
- 따라서 급증하는 한중 전자상거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전라북도를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특구로 육성,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가 지역경제에 순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군산항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 유치 기대효과

◎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처리 현황

-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약 160만 건의 국제 전자상거래 물동량은 2019년 기준 약 430만 건으로 급성장함
- 국가별로는 미국이 약 191만 건(44.5%)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으며, 중국이 약 116만 건(27.0%)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이며, 중국 화물의 경우 인천항과 평택항에 개설된 통관장에서 카페리해운서비스로 수입되는 화물을 처리하고 있음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화물 반입동향]

(단위: 천건, 천불)

연도	목록통관		EDI 수입		총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9,065	714,803	6,777	806,423	15,842	1,521,226
2016	9,763	719,282	7,632	915,259	17,395	1,634,540
2017	13,217	886,811	10,375	1,223,429	23,592	2,110,240
2018	19,158	1,179,064	13,097	1,575,880	32,255	2,754,944
2019	25,549	1,291,953	17,439	1,851,258	42,988	3,143,211

자료: 관세청(내부행정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index.go.kr. 접속일: 2020. 6. 15.; 전북연구원. (2020).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연구. 군산시, 262. 재인용.

[주요 국가별 전자상거래 화물 반입동향]

(단위: 건, 천불)

	2017			2018			2019		
	국가	총합		국가	총합		국가	총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3,592,000	2,110,240	계	32,255,260	2,754,944	계	42,988,678	3,143,211
1	미국	13,302,000	1,214,630	미국	16,245,730	1,471,596	미국	19,148,188	1,534,002
2	독일	2,212,000	187,296	중국	6,479,686	310,270	중국	11,605,298	403,152
3	영국	744,000	170,050	일본	2,594,308	172,390	독일	3,042,407	262,064
4	중국	3,229,000	191,371	홍콩	1,934,700	154,838	홍콩	2,918,456	184,768
5	일본	2,015,000	136,818	독일	2,399,778	212,812	일본	2,718,213	179,731
6	홍콩	858,000	81,128	영국	902,458	238,370	영국	1,240,255	316,862
7	이탈리아	107,000	31,477	프랑스	348,629	31,076	호주	607,868	42,030
8	프랑스	443,000	29,587	호주	288,444	22,745	프랑스	457,145	49,230
9	기타	682,000	67,883	기타	1,061,527	140,847	기타	1,250,848	171,371

자료: 관세청(내부행정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index.go.kr. 접속일: 2020. 6. 15.; 전북연구원. (2020).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연구. 군산시, 263. 재인용.

◎ 한중 해상 전자상거래 수입화물 처리절차










- [수출국: 중국]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카페리해운서비스가 개설된 항만으로 이동, 카페리선은 저녁에 출발하므로 오전, 오후 집화 및 선적이 이루어짐
- [이동] 중국에서 인천, 평택, 군산 등 한중카페리항로가 개설된 곳은 12시간 이상 해상운송되며, 여객 승선객의 하선시간에 맞추어 다음날 아침 9시 이전에 도착
- [수입국: 대한민국] 통관장이 개설된 인천, 평택은 수입통관 후 택배물류 허브인 대전광역시, 충북옥천 등지로 이동하여 택배물류서비스가 이루어짐
 - 통관장이 없는 군산항으로 수입된 전자상거래 화물은 보세운송 후 인천에서 수입통관을 하고 대전, 옥천 등 택배물류 허브로 이동
 - 물동량이 많은 인천, 평택 등지에서의 수입통관시간에 따라 후속 택배물류 개시 시간에 차이가 있으며, 코로나19로 물동량이 급증한 현재, 인천, 평택 등지의 전자상거래 수입화물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음

군산항에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특구를 조성하여 비대면 경제시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자!

◎ 군산항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 조성시 물류개선효과

- 군산항에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이 조성될 경우 제품수령소요시간이 단축되는 물류 개선 효과가 있음
- 기존 방식대로 군산항으로 입항하는 전자상거래 수입화물이 인천으로 보세운송, 통관 후 택배물류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대략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됨
- 군산항에 전자상거래 통관장이 개설될 경우 물동량과 우리나라 택배물류센터 상황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지만 3일정도면 주문자에게 도달할 수 있음
- 수·배송시간 단축 외에도 보세운송 절차가 생략되므로 해당 구간의 물류비 절감효과, 통관 대기에 따른 시간손실 등을 최소화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군산항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 개설시 물류개선효과]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현재	2020.12.1. 19:00	2020.12.2. 9:00	2020.12.2. 3~4일 소요	2020.12.7. 1일	2020.12.8. 1박 2일
현재	 물품발송	 군산항 하역	 인천 (보세운송·통관)	 물류센터입고 (택배)	 고객수령
통관장 설립 시	2020.12.1.  물품발송	2020.12.2.  군산항하역·통관	2020.12.2.  물류센터입고 (택배)	2020.12.3.  고객수령	

자료: 전북연구원. (2020).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연구. 군산시, 269. 연구자 재작성.

◎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

-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전제를 설정함
 - 가.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 운영업체는 민간특송업체 유치를 가정하여 구상
 - 나. 민간특송업체의 투자를 전제하므로, 전자상거래 물류거점 조성비용을 제외하고, 전라북도(군산시) 중심 지역경제 기대효과를 추정

다. 물류영역에 국한된 전자상거래 화물처리에 따른 직접 효과만 추정(지역 특산물 수출 등 후속연계효과는 미반영)

라. 일자리 창출 및 매출액 등 기대효과를 산정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관계자 인터뷰 결과를 반영

- 1)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는 주 5일 근무, 1인당 연간 3천만 원 급여를 가정함(전자상거래 물류거점 운영 관련 일자리는 취급 물동량에 따라 결정되며, 물동량 증가에 따라 직·간접 고용 인력의 증가 예상)
 - 2) 카페리해운선사 매출은 1FEU(1FEU=2TEU)당 1,700USD 적용
 - 3) 하역업체 매출은 1FEU당 152,000원을 적용
 - 4) 화물운송은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안전운임제 적용, 충청북도 옥천군 기준 화물운송매출을 산정
 - 5) 간접고용 인건비는 국내 내륙운송 물동량 증가에 따라 카페리해운선사와 하역업체 등에서 신규채용 인력 추정(주5일 근무, 연봉 3천만 원 적용)
- 보수적으로 연간 3,000TEU의 한중 전자상거래 해상수입물동량을 처리할 경우 전자상거래 물류거점 관련 기대효과는 약 1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전자상거래 통관장이 없던 2019년 기준 총 648TEU가 통관을 위하여 군산항에서 인천으로 보세운송된 것을 고려할 때, 군산항에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이 조성될 경우 보수적으로 3,000TEU 이상을 전망

[군산항 전자상거래 물류거점 운영 시 기대효과 추정결과]

(단위: 천원)

수입물동량 (TEU)	통관장운영	통관장운영 매출	카페리선사 매출	하역업체 매출	화물운송 (FEU기준)	간접고용 인건비	합계
1,000	600,000	3,240,000	2,244,000	167,200	184,095	180,000	6,615,295
2,000	600,000	6,480,000	4,488,000	334,400	368,189	300,000	12,570,589
3,000	600,000	9,720,000	6,732,000	501,600	552,284	390,000	18,495,884
4,000	600,000	12,960,000	8,976,000	668,800	736,378	510,000	24,451,178
5,000	600,000	16,200,000	11,220,000	836,000	920,473	660,000	30,436,473

자료: 전북연구원. (2020).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연구. 군산시, 281.

- 민간특송업체는 종합물류기업 자격을 갖춘 업체로 현재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물동량 일부를 군산항 물류거점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군산항에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특구를 조성하여 비대면 경제시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자!

- 군산항 활성화 이외에도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도민의 관심이 높은 ‘새만금국제공항’의 건설과 조기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전통적으로 전자상거래 화물은 항공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한중 해상전자상거래 물동량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물류거점기지로 도약하는 지역 특화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국제전자상거래 항공화물 유치와 한중해상화물의 3국간 Sea & Air* 연계효과를 통하여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Sea & Air는 해상·항공복합운송을 의미하는데, 중국에서 해상 수송된 수입화물이 새만금국제공항에서 환적(transshipment)하여 최종목적지로 전달되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단순 Sea & Air 모델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 중심으로 형성된 단조로운 군산항의 정기선 항로를 개항 간 수송, 환적모델 등을 적용하여 군산항의 확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함

3. 군산항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 운영업체 유치·운영전략

◎ 해상전자상거래 자가통관장 운영이 가능한 민간특송업체 유치

- 2020년 4월, 국내 택배점유율 1위(약 50%) 기업이 경기도 광주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택배 물류 인프라를 개조하여 택배허브 일부가 경기도로 이동함
 - 수도권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택배물류허브가 형성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원화 전략 추진이 본격화됨
 - 군산항은 비수도권 허브와 인접했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으나, 비대면 물류산업 변화대응을 단기간 적절히 하지 못할 경우 비대면 경제체계 전환으로 생긴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음
 - 또한 기존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이 인천과 평택에 있는 여건과 현재 통관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물동량 급증에 대응하여, 제3의 대안으로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특구를 군산항에 조성한다는 논리는 시의성이 있음
- 군산항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은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특송업체를 유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
 - 코로나19에 의한 비대면 경제체계의 가속화가 빨라지고 있으며, 단기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인천, 평택 등 기존 물류거점의 인프라가 보강될 가능성이 높음
 - 전자상거래 물류산업의 급박한 여건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세관이 직접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을 조성, 운영하는 것은 적시 대응의 한계가 있음
- 현행법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민간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 통관 물류거점을 운영할 수 있음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신설 2013. 1. 1., 2014. 1. 1., 2016. 1. 27.>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자체시설 통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법 제254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송업체 등록일 또는 제15조에 따른 자체시설 통관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최근 1년간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송업체의 평가결과가 '개선대상업체' 또는 '관리대상업체'로 평가받은 경우
3.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
4. 그 밖의 세관장이 화물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려는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특송업체로 등록한 자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법인
2. 참고
 - 가. 특송업체가 해당 창고의 운영인이거나 운영인과 출자 또는 임대차관계 등으로 해당 창고를 배타적·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독자적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특송물품을 취급할 것
 - 나. 별표 4의 특송창고 표준모델 레이아웃(Lay-out)에 따른 창고시설 구비
3. 검색 및 검사설비
 - 가. 컬러판독 및 저장이 가능한 양방향 X-Ray 검색기
 - 나. 판독영상과 신고(통관목록)내용이 화면에 동시에 구현되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
 - 다. 검사생략 물품·검사대상 물품 및 통관 완료물품·미통관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자동분류기
 - 라. 세관직원 전용 검사장소
4. 취급물품
 - 가. 특송업체가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는 특송물품으로서 자기명의로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 화물운송장에 따라 운송되는 화물

• 코로나19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화물과 향후 건설될 새만금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인 민간특송업체의 유치방안 검토가 필요

- (민간특송업체 통관허가) 민간특송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제전자상거래화물의 통관업무와 관련된 허가권한을 보유한 관세청(군산세관)의 참여가 필요
- (기업유치활동) 2차적으로 코로나19로 신규 투자를 주저하는 민간기업을 군산항 배후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전북도, 군산시의 적극적인 유치지원활동이 필요
- (원활한 수출입 업무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향후 군산항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 운영 시 원활한 협력을 약속하는 관계기관 MOU 체결을 토대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

◎ 군산항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 유치·운영 거버넌스 구성

• 민간업체를 유치, 관련 통관서비스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함

군산항에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특구를 조성하여 비대면 경제시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자!

- 자격을 갖춘 민간업체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통관장 운영역량을 갖춘 물류업체, 한중 전자상거래 화물을 신속하게 수송할 카페리선사, 전자상거래 화물의 집화 및 수배를 담당하는 물류기업 등을 의미
- 관계기관은 군산항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한 물류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지원, 협력할 수 있는 관세청(군산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 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라북도청, 군산시청 등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
- 연구기관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동향과 군산항 전자상거래 물류처리절차 등을 모니터링하고, 군산항 전자상거래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전자상거래 화물처리 활성화 전략 등 향후 전략 구상 등을 담당할 연구, 컨설팅 기관을 의미



[군산항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 유치·운영을 위한 거버넌스(안)]

◎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 유치·운영 지원

- 민간특송업체와 군산항을 모항으로 운항하는 카페리선사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을 유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신속한 운영 활성화 전략 수립이 필요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경제체제로 전환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현재 국가 간 사람의 이동은 여전히 제한되지만, 물품의 이동은 급증하고 있음
- 국제전자상거래 증가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특송업체의 유치 뿐 아니라 최단기간에 통관장 조성작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조성 및 운영전략을 동시에 구상해야 함

◎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 기반 신규비즈니스 제안

•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모델 발굴

- 민간특송업체의 자격을 갖춘 기업은 대부분 종합물류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해외판로 개척에 활용할 수 있음
-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 입점과 운영·관리 등 물류 영역의 최적화된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B2B 전략”, “내수판매 전략”에서 “B2C 전략” 추진 가능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식품수출 지원모델 발굴

- 정부가 식품수출 거점으로 조성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식품수출도 최근 집에서 조리해 먹는 트렌드를 반영한 밀키트 제품개발, 국제전자상거래에 적합한 포장재 개발, B2C 기반 전자상거래 수출 전략과 협력이 가능
- 전자상거래 물류네트워크와 식품수출 콜드체인 간 융·복합 물류네트워크가 구성하여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품질관리, 온·습도 모니터링, 저렴한 물류비용, 고품질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전라북도 특산물(JB-goods) 중국 수출연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군산항 전자상거래 물류거점 일부를 지역 특산물 수출거점으로 활용하여 지역 특산물의 판로 개척과 한·중 지역간 연계협력 모델로 향상시킴(나정호 외, 2020)
- 최근 트렌드는 완제품의 풀필먼트 센터(fulfillment center)*를 소비자 인근에 배치하여 시간과 비용절감,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음
- 전라북도 특산물의 풀필먼트 센터를 전자상거래 물류거점 일부공간에 배치하여 중국 산둥성 지역 소비자 만족도 제고, 지역간 협력모델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풀필먼트센터는 전자상거래 고객 주문의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선두주자인 아마존에서 적용한 개념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취급하는 주요 제품을 보관하여, 고객 주문시 바로 대응하는 물류거점을 의미함

• 전라북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장

- 장기적으로 군산항, 새만금신항만, 새만금국제공항 등의 물류거점과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전라북도 수출입 교역루트를 다양화할 수 있음
- 개항 간 수송, 3국간 해륙복합운송, 해상-항공 복합운송 등 연계물류네트워크를 고도화하여 궁극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재편함

군산항에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특구를 조성하여 비대면 경제시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자!

<참고문헌>

관세청. (내부행정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index.go.kr. 접속일: 2020. 6. 15.

김현수. (2020).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트렌드, Trade Focus, 21, 한국무역협회.

나정호, 이병훈, 정호중. (2020). 전라북도 수출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유통정보사. (2020. 11.), "한진 인천공항 GDC 개장 '수출입 물류·환적화물 유치', 물류매거진, 61.

이동현. (2020). "전자상거래 해상특송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Monthly magazine for the blue ocean, (사)한국해양산업협회.

전북연구원. (2020).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연구. 군산시.

한지은. (2020. 11. 5.) "DHL "올 11, 12월 역대 최대 물량"... 전 세계 전자상거래 분주. 투데이코리아.



ISSUE BRIEFING
2020. 12. 16 Vol. 236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